천주교 서울대교구
흑석동성당
평화의 모후 & 14동직 지구 대표 본당

박규흠 베네딕토 지구장 신부님
유인창 안사노 주임 신부님
김한솔 도미니코 1부주임 신부님
노동준 안토니오 2부주임 신부님
황중호 베드로 평화방송 신부님
임현호 도미니코 환경사목 신부님
정 엘리지아 수녀님(원장)
장 릴리안 수녀님(전교)
서 다비드 수녀님(유치원)

성당 사무실 : 816-2961 평화의 쉼터(봉안시설) : 816-2919 명수유치원 : 816-2964 연령회 회장 : 010-9243-0588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길"

(※ 아래의 글은, 2023년 1월 8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수원교구 주보에 실렸던 김보경 스텔라님의 이야기입니다. 성탄 시기를 마무리하며, 올 한 해 주님께 인도하는 별을 잘 따라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근무하는 의사입니다.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이곳에서 일한 지 이제 막 1년을 채워가는 아직은 햇병아리 호스피스 의사이지요. 더불어 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지만으로 1년이 막 지난 새내기 신자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열심히 성당을 다녔지만, 공부를 핑계로 성당에 잘 나가지 않게 되면서 흔히 말하는 나이롱(?) 신자로 지내던 제가 세례를 받을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이곳에서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대전성모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전공의 시절, 성빈센트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으로 두 달 정도 파견근무를 오게 됐습니다. 병동의 분위기가 무겁고 슬플 것이라는 막연한 제 선입견이 틀렸음을 느끼는 데는 며칠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학은 암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와 가족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돌봄을 행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며,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환자'가 아닌 '삶의 남은 시간을 소중한 사람들과 의미 있게 보내는 환자들'이 점차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예수님과 성모님이 계셨습니다.

이곳은 가톨릭 병원답게 병실마다 십자고상이 걸려있고, 병동 가장 환한 곳에 있는 작은 정원에는 성모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환자·보호자들이 혼자 기도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수녀님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드리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몸은 병마로 고단하지만, 주일이면 꼭 성당에 가고 싶어 하던 환자와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좋아하던 성가와 성경 구절을 들려주며 마지막 작별의 시간을 보내는 보호자, 병자성사를 위해 병동을 방문해주시는 신부님과 수녀님들까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에 잠들어있던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병동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과 성모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보낸 두 달의 시간은 제게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을 통해 하느님을 다시 마주하게 된 후 교리 수업을 신청했고, 세례를 통해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례명을 성모님의 애칭을 딴 '스텔라'로 정하며 성모님께서 보여주신 하느님에 대한 순명과 사랑, 예수님과 함께하신 신앙의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또 전문의가 된 후의 진로를 고민하던 제게 이곳에서의 경험은 마치 '선원들을 이끄는 밤바다의 별'처럼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고, 저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목전에 둔 환자들의 소중한 마무리를 함께 하는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 공현 대축일은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을 찾고 경배드린 것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19년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 전혀 다른 여정을 시작해야 하며 선택의 길, 그분의 길, 겸손한 사랑의 길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게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의 근무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며 사랑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환자분들의 마지막 시간을 평안히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15:00(유초등부) 19:00(특전) 일요일 06:00 09:00 10:00(중고등부 학생미사:소성전) 11:00(교중) 19:00(청년)						
	월	화	수	목	금	토	
평일	오전 06:00	오전 06:00 10:00 오후 07:00	오전 06:00 10:00	오전 06:00 10:00 오후 07:00	오전 06:00 10:00	오전 10:00	

◉ 우리들의 정성 (12. 30 ~ 01. 05)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헌금	6,962,500원	감사헌금	김형길	임정해
주님 공현 대축일 헌금	7,384,000원		박희현	익 명
교 무 금	21,510,000원		이리호	익 명

금주 교무금 내신 분

강균민	김미성	김정옥	남영우	박진희	오세형	이도근	이정미	정경하	최승구
강상목	김민수	김정우	노성숙	박태훈	오제옥	이동호	이종목	정다겸	최영미
강석오	김민주	김정욱	노종찬	박희현	오현석	이리호	이종윤	정덕인	최영재
강성호	김상금	김종무	문영자	백미경	원동순	이민정	이주경	정두기	최유진
강승철	김상훈	김종욱	문정식	백 현	원복순	이병욱	이주은	정병만	최윤자
강안순	김소은	김종현	박경혜	손태원	원은영	이병찬	이택윤	정우태	최은주
강준모	김수연	김지혜	박경희	송주용	유옥우	이상령	이해선	정윤택	최정숙
강지선	김순남	김진수	박내룡	송희경	유지영	이상로	이회성	조경환	최주환
강진란	김영숙	김찬호	박민흠	신관철	유진호	이상민	이희승	조세윤	최혜숙
강희광	김영실	김창용	박상권	신민경	유혜린	이상은	임금자	조영옥	하은주
고광태	김예빈	김태성	박성재	신혜주	윤경례	이성룡	임동열	조현진	한경석
고병철	김옥근	김학준	박성준	양승자	윤현자	이숙자	임현정	주금례	홍순경
구영훈	김용식	김형배	박성희	양우권	이건욱	이영자	임화숙	중도정강	홍영균
권희섭	김용훈	김혜숙	박숙희	양혜영	이경애	이영희	장원숙	지부자	화승주
김규엽	김은영	김효주	박우순	엄영자	이경원	이용옥	장정임	차성근	황인자
김기홍	김인석	김희옥	박의부	여강은	이경자	이원주	전부자	최금수	
김길자	김임균	나상임	박정순	염동권	이기월	이윤정	전찬석	최상묵	
김미경	김재정	남관우	박지현	오백교	이덕재	이재찬	전필원	최선봉	

□ 대림절 자선 저금통을 오늘(11일&12일) 미사 중에 봉헌하시거나 사무실로 가져다주세요. 봉헌된 저금통은 가톨릭 사회복지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 중고등부 주일학교 겨울 피정

1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성령선교수녀회로 피정을 갑니다. 피정에 참가하는 신부님・수녀님・교사・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초 축복 신청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에는 성당과 가정에서 한 해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미사 때 제대 위에 놓는 초와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는 초를 사무실에 미리 신청해주세요.

□ 회합과 모임 ※(대)-대성전지하, (교)-교육관

모임단체	일 시	장 소
남녀 4구역	12일(일) 교중미사 후	(교)204호
남성 9구역		(대)3회합실
남성13구역		(대)5회합실
남성 1구역	23일(목) 저녁 7시	(교)205호
남녀14구역	2월 9일(일) 교중미사 후	(교)202호
남녀15구역		(대)강당

□ 설명절 차례미사(합동위령미사)

1월 14일(화)부터 대성전에서 오후 3시에, 평화의 쉼터 가족분들을 위한 설명절 차례미사가 봉헌됩니다. 아래 일정 동안, 우리 흑석동 성당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친절한 안내와 양보 부탁드립니다.

※ 이번 달은 설명절이 있는 관계로 둘째 토요일에 있는 추모미사는 평일미사로 봉헌됩니다.

일 시	안치단
1월 14일(화)	베드로&마태오
1월 15일(수)	미카엘&토마스
1월 16일(목)	마리아
1월 17일(금)	요셉
1월 20일(월)	우리성인&가브리엘
1월 21일(화)	시몬&바오로
1월 22일(수)	바르톨로메오&필립보
1월 23일(목)	야고보&라파엘
1월 24일(금)	요한&타대오
1월 27일(월)	안드레아&마티아

□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비로 인한 결빙과 블랙아이스가 발생합니다. 성당 실내외에서 낙상사고에 주의해주시고, 입출차·주차·운전 중에 조심해 주세요.